

## 화엄사 서오층석탑내의 지류문화재 긴급보존처리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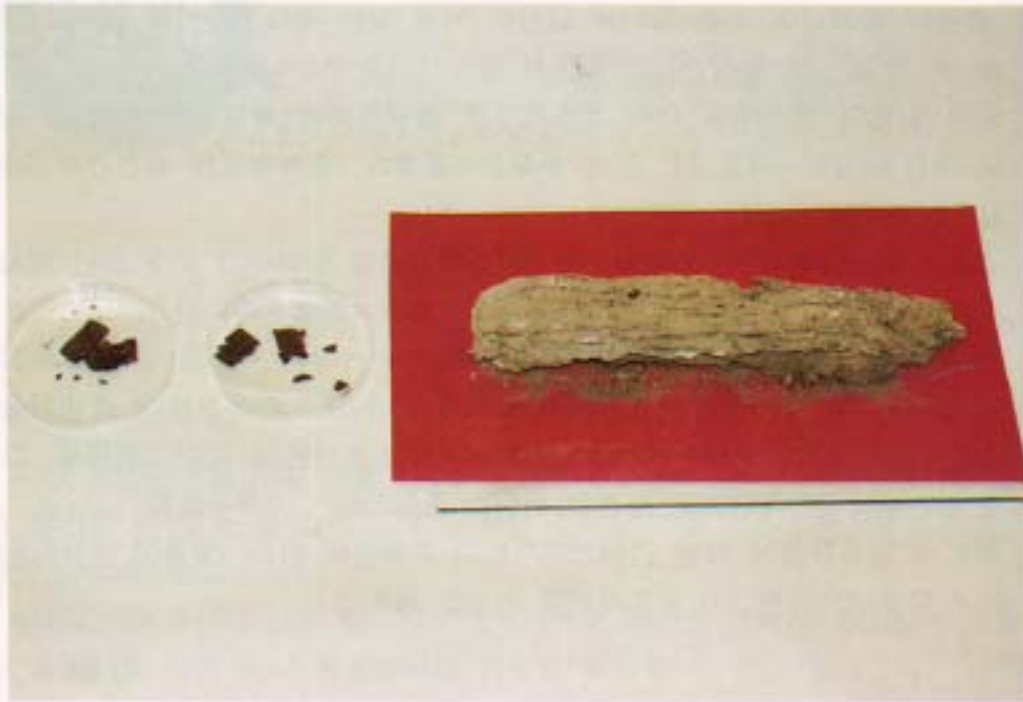
지난 1995년 8월 18일 보물 133호 華嚴寺 西五層石塔의 해체공사중 1층 탑신에서 발견된 바 있는 통일신라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류유물에 대하여 긴급보존처리가 완료되었다.

발견당시의 지류유물은 약 27 × 6 × 3cm의 크기로 뭉쳐져 있었으며 유물전체가 흠먼지로 덮여 있어 유물형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오랜동안 탑내에 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출시 지류유물의 훼손이 우려되어 발견당시부터 현재까지 3차의 자문회의에 따라 긴급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보존처리는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3월 26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지류·섬유질문화재보존처리실에서 朴智善(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소장)씨에 의하여 지류유물의 상태조사, 해체, 클리닝(세척) 등을 실시하여 손상방지 및 임시보존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리고 긴급보존처리후 지류유물에 관한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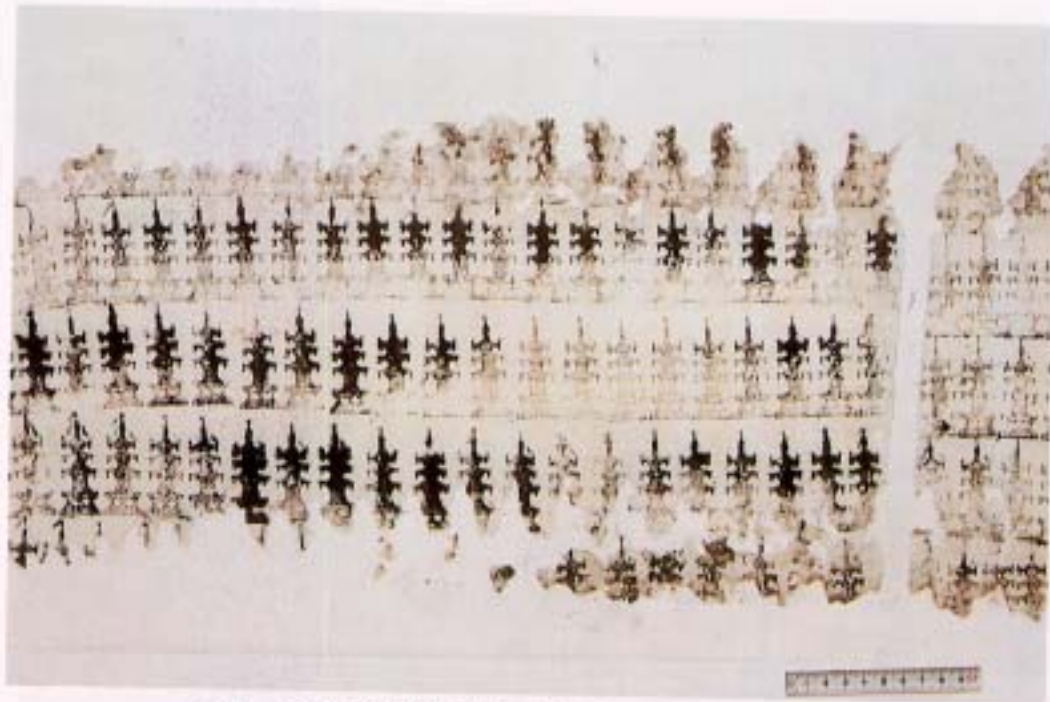
1. 塔印이 찍힌 종지와 經文을 筆寫한 종이를 서로 겹쳐서 말은 두루말이의 白紙墨書經이었고 외부는 蟲害에 의하여 심하게 손상(결실)된 상태였음.
2. 지류유물의 종이는 순수한 닥섬유로 만들어진 한지이며 두께가 서로 다른 3종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총길이는 약 11m 정도로 예측됨.
3. 지류유물 중심부에서 塔印이 찍혀진 거의 완전한 종이 1장(약 46.4×24.2cm)이 말려진 상태로 발견되었음(塔印은 목판인 것으로 추정).
4. 塔印은 두께가 다른 3종의 종이중 가장 두꺼운 종이에 찍혀있었고, 經文은 얇은 종이(국보 제 196호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과 같은 지질로 추정)에 필사되어 있었음.
5. 경문이 필사되어 있는 종이는 경선이 쳐져 있는 것과 없는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고, 그 경선간격도 일정치 않아서 0.9~1.2cm까지의 폭을 보이고 있으며 일행의 글자수도 대략 30~75자로 불규칙하며 筆體도 5人以上인 것으로 추정됨(참조 : 국보 제 196호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경선간격 0.8cm, 일행당 34자로 일정)
6. 경문은 모두 無垢淨光大陀羅尼經 중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최소 25번 필사한 것으로서 유물 본문에는 最勝無垢清淨光明大根本陀羅尼經이라고 쓰여 있음
7. 화엄사 서오층석탑 출토 지류유물은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불국사 석가탑 출토 국보 126호 無垢淨光大陀羅尼經(목판본)과 호암미술관 소장 국보 196호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필사본)에 이어 3번째로, 그리고 필사본으로는 2번째로 발견된 귀중한 통일신라기 지류유물임.
8. 화엄사 지류유물에 대한 긴급보존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4월중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 2차 보존처리를 시행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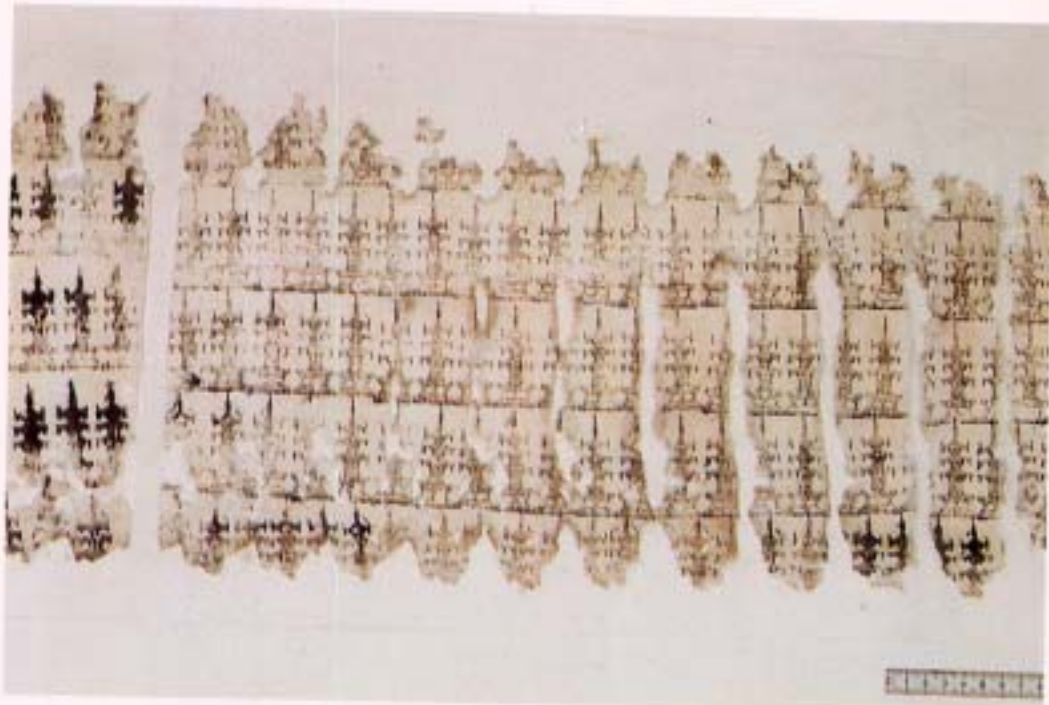
화엄사 서오층석탑 출토 지류유물인 백지묵서경의 수리전 상태(맨오른쪽)



상대습도  $55 \pm 5\%$ 를 유지하는 반밀폐공간에서 지류유물의 해체작업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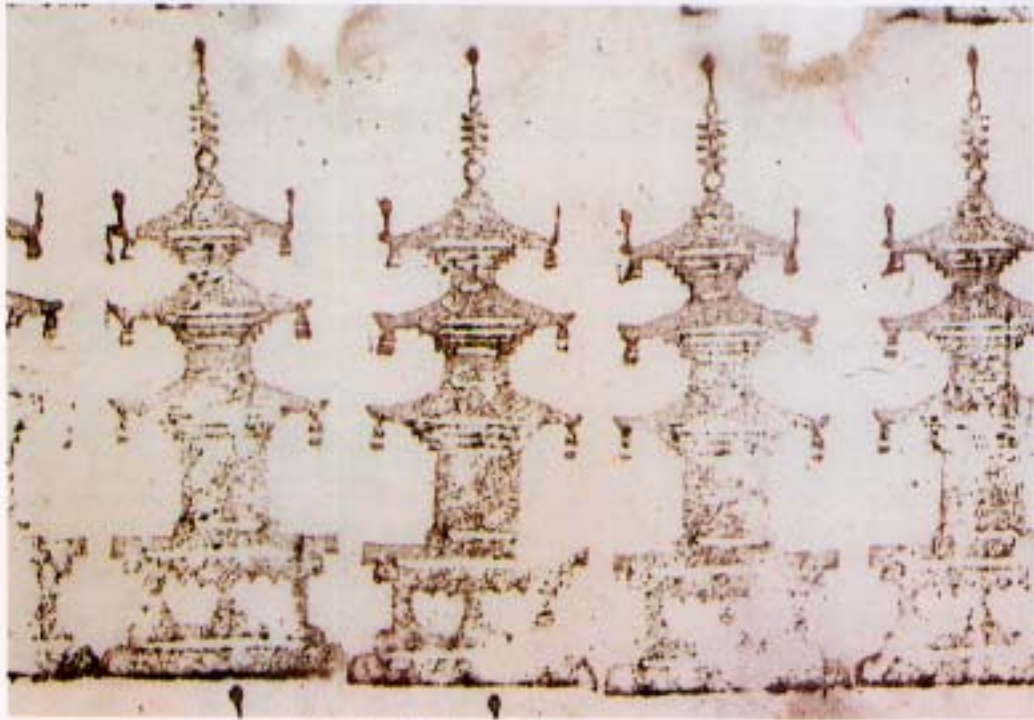


유물 중심부분에서 잘려진 상태로 나온 탐인 첫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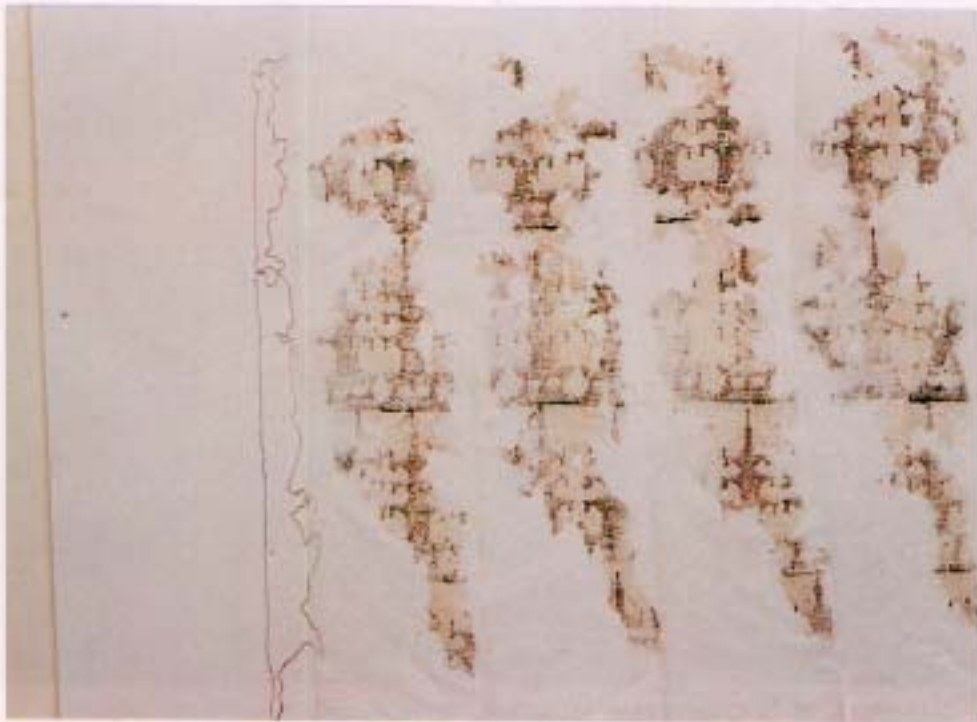


첫째장에 이어 나온 탐인 둘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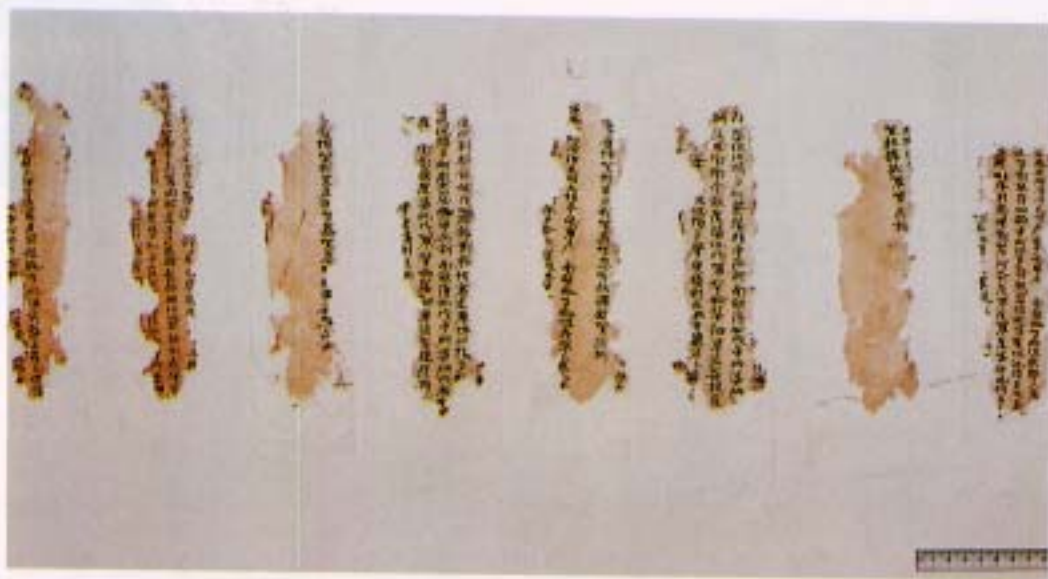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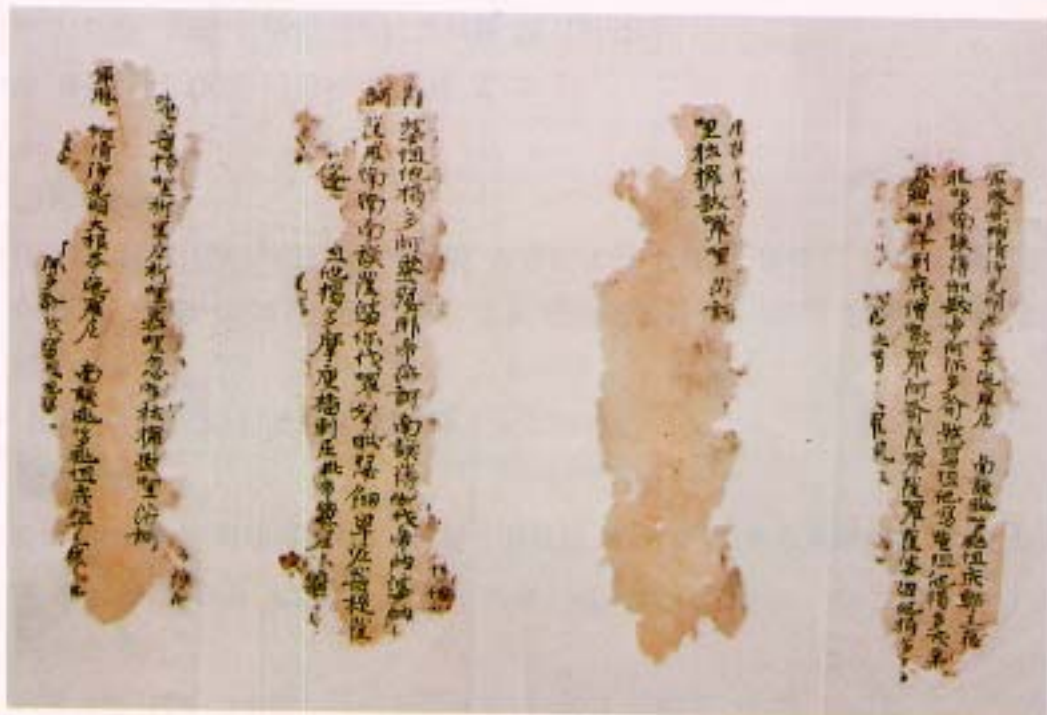
탑인의 세부상태(탑인 둘째장 일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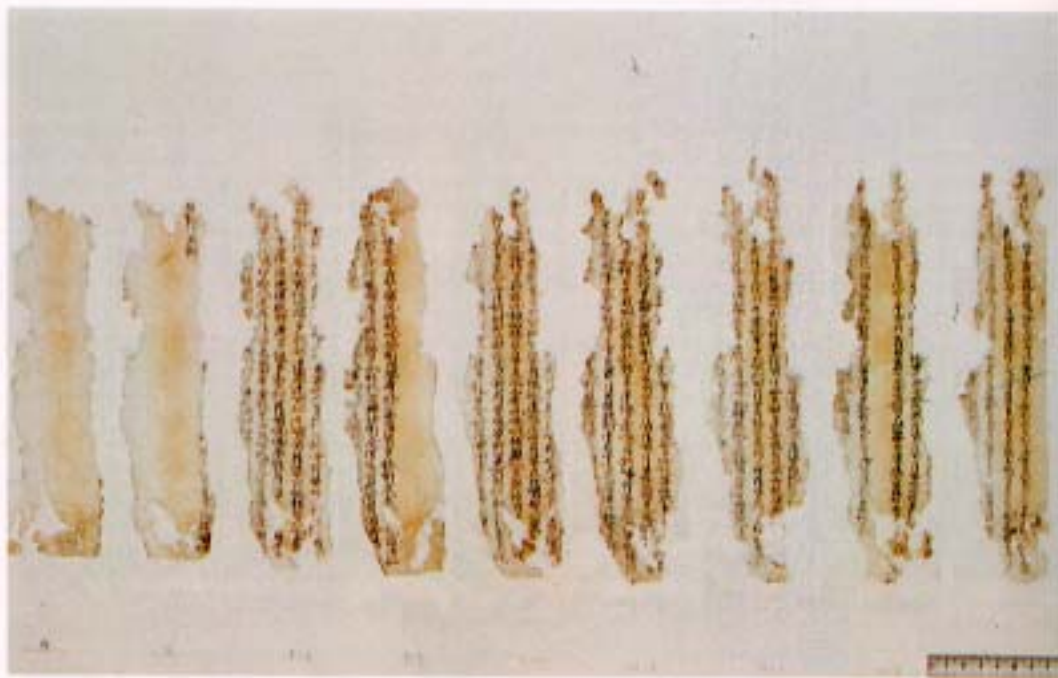
나뭇결과 유사한 흔적이 있는 탑인(목판으로 추정)



해체·분리된 긴급보존처리가 완료된 첫번째 필사본의 상태



첫번째 필사본중 경명이 보이는 종이단면



해체·분리등 긴급보존처리가 완료된 네번째 필사본의 상태